

| | |
|----------------------------------|-----------------------------------|
| ↑ 코스피 2521.05 (+28.95) | ↑ 코스닥 719.63 (+1.34) |
| ↓ 금리 (연 9%) 2.505 (-0.003) | ↑ 환율 (원·달러) 1456.85 (+3.35) |

수출 이상향 유지 총력
무역보험 252조
역대최대 지원
02



전자업계 ‘실적 쇼크’ 삼성 29% LG 81%↓

(3분기 대비 영업이익)

2024년 4분기 잠정실적

전자 ‘빅2’ 영업익 3분기비 급락
삼성, 반도체 담당 DS부문 악화
LG, 중동 등 불확실한 환경 영향

가전업계가 처참한 4분기 성적표를 공개했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사태가 닥친 2023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성장했으나 직전 분기 대비로는 뚜렷한 하락세가 드러났다.

(관련기사 3면)

8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2024년 4분기 잠정실적을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연결기준 매출 75조원, 영업이익 6조5000억원의 실적을 냈고 LG전자는 매출 22조7775억원, 영업이익 1461억원을 기록했다.

두 기업 모두 3분기 대비 급락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에서 직전 분기 9조1834억원 대비 29.19% 감소했다. 매출도 직전 분기 대비 5.18% 줄었다.

4분기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실적 악화가 지목된다.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발표에서 사업부별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DS 부문의

4분기 영업이익이 약 3조원대 중반으로, 직전분기 3조9000억원보다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3분기 7519억원 대비 80.5% 급감했다. 매출은 약 2% 성장했다. 다만 LG전자는 2024년 연간 누적 매출 87조 7442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는 2023년 대비 6.66% 증가한 수치로, 2021년부터 이어진 연간 매출 기록 경신 행진을 이어가며 연평균 성장률(CAGR) 10%를 넘겼다.

LG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감소를 두고 2024년 하반기 중동 지역 리스크로 인한 국제 해상 운임 급등과 불확실한 사업 환경을 지목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TV·가전 제품 주요 사업의 경쟁이 심화하며 이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와 BS(비즈니스솔루션)사업부의 신사업 투자비용 증가도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품질, 원가 등 사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고경비 효율화를 통한 건전한 수익구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900원(3.43%) 오른 5만7300원에 거래



코스피 2500선 돌파 마감

코스피가 전 거래일(2492.10)보다 28.95포인트(1.16%) 오른 2521.05에 마감한 8일 서울 증시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18.29)보다 1.34포인트(0.19%) 상승한 719.63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53.5원)보다 1.5원 오른 1456.85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관련기사 12면) /뉴스

코스피가 전 거래일(2492.10)보다 28.95포인트(1.16%) 오른 2521.05에 마감한 8일 서울 증시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18.29)보다 1.34포인트(0.19%) 상승한 719.63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53.5원)보다 1.5원 오른 1456.85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관련기사 12면) /뉴스

를 마쳤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 기대감이 나오면서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식 2761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해 8월16일(5198억원)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대 규모 순매수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에 대해 1분기 저점을 통과한 뒤 2분기 또는 하반기를 지나야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트럼프 2기 영향 합심 대응

최상목 대행 체제 고위당정협의회 설 연휴 내수진작·관광활성화 도모

당정이 오는 27일을 내수 경기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근로자는 최대 6일의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고, 오는 31일에 연차를 내면 주말 포함 최대 9일까지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은 1월 27일을 설 연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정부 측에 건의했다”며 “이에 당정은 설 연휴기간 내수 경기진작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영향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 유발액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3000억원을 유발한다고 밝혔다”며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예상하고 국민계 휴식 기회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기간 확대에 의한 교통 분산 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길 기대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또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폐지 검토, 유럽연합(EU)에 대해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관세 부과 의지 표명 등 미국 신행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정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내에 상호관세법 추진 등을 대비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심해 총력 대응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매주 가동 ▲한미조선협력 패키지 협력의제 발굴 ▲미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 면담 ▲국제금융협력대사, 국제투자협력대사 임명 ▲무역위원회 전면적 확대 개편 및 10조원 규모 공급망 기금 가동 ▲대중국 공급망 취약 품목 선제 대응 ▲아랍에미리트·과테말라 등 유망 신흥국 통상 협력 가속화 ▲탄자니아·칠레 등 핵심 광물 협력 파트너십 구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방미단 적극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금융시장 동향 및 대책을 논의했다. (6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현대차그룹, 쇳물부터 차까지 美서 생산한다

트럼프 2기 보호무역 선제 대응
美 10조 투자, 제철소 건설 검토



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내년 초에는 부지 확정 및 착공에 나서고, 2029년 제철소를 완공한다는 목표다. 만약 현지 투자가 성사될 경우 현대제철은 처음으로 해외에서 쇳물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일관제철소를 완공하면서 ‘고로(高爐) 쇳물부터 자동차까지’ 생산하고 싶었던 아버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꿈을 이뤄줬던 것처럼 정희선 회장(사진)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쇳물부터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총 투자비용은 70억 달러(약 10조 원)로 알려졌다며 연간 생산량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조지아주 기아 공장(연 35만대), 앨라배마주

현대차 공장(연 33만대), 조지아주 HMGMA에서(연 40만대)를 생산한다고 보면 수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869만톤을 생산했다. 미국에 추진하는 제철소는 고로 대신 직접환원제철(DRI)을 통해 얻어진 순수한 철을 전기로에 녹여 쇳물을 얻는 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제철소를 구축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신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산을 촉발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차그룹과 현대제철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남부 지역에 제철소 건설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



▲ 민주당 “추경 규모, 20조원이 출발선… 적자국채 발행해야”
▲ 권성동 “쌍특검법 부결시켜야… 보수우파 주도 화하겠다” (사진 뉴스)

▲ 박찬대 “與, 내란특검법 찬성해야… 이대로면 멸종된 공룡 신세”
▲ 우원식 의장 “尹, 나라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사법절차에 임하라”

▲ 달아오르는 아산시장 재선거… 예비후보들 잇따라 출사표
▲ 민주당 “추경 규모, 20조원이 출발선… 적자국채 발행해야”